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비오며,
아픔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01 의과학연구소 김정연 박사, '젊은 연구자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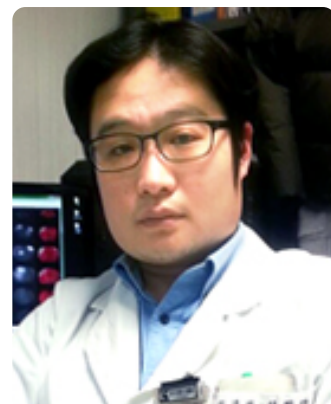
의과학연구소 김정연 박사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대한분자영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Young Investigator's Award)을 수상했다.

김정연 박사(동국대학교 의과대학)는 신경과 김동익 교수의 지도로 'CT와 금나노입자를 이용한 직접적 혈전영상기술이 혈전용해치료를 반영하는 연구'의 주제를 발표하여 상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CT 기반 혈전탐지 나노 영상기술'이 환자 대상 연구를 마치고 임상에 적용되면 뇌경색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혈관계/말초혈관계 혈전증의 진단 및 치료에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논문은 신경학분야 최고 권위지인 Annals of Neurology (피인용 지수 11.08)에도 발표되었다.

한편, '젊은 연구자상'은 젊은 회원 중 분자영상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뛰어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연구자 중에 구술발표를 통해 선정하는 상이다.



02 환우를 위한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이벤트식 실시

영양팀은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에도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지내야 했던 입원 환우들을 위해 작은 정성이 담긴 이벤트식을 제공했다.

5월 5일에는 소아 환아들을 위해 '햄버그스테이크 정식'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막대풍선을 함께 제공하였고, 6일에는 석가탄신일 축하메시지와 함께 환자식에 시원한 '미숫가루'를 디저트로 제공했다.

영양팀 직원들은 긴 치료에 지친 어린 환아가 이벤트식을 받고 환하게 함박웃음을 짓고, 퇴식할 때 시원한 미숫가루 덕분에 기분이 좋았다는 어르신들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영양팀은 앞으로도 병원 생활을 하는 환우를 위해 작지만 소소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03 영상의학과, 인천 아라뱃길에서 자전거 라이딩으로 단합대회 열어

영상의학과는 5월 10일 김정숙 과장 외 34명이 참여하여 인천 아라뱃길 약 25km 구간을 자전거로 완주했다.

5인 1팀으로 구성된 7개의 팀은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계양역에서 아라서해갑문(아라타워) 순환코스를 돌며 라이딩을 즐겼다. 각 팀의 조장들은 안전하게 라이딩을 유도하면서도 각 팀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동료 간에 우애를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영상의학과는 매년 산행으로 단합대회를 진행하였으나, 분위기 쇄신을 위해 올해는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부서단합을 시도했다. 처음 경험하는 라이더들이 많았지만, 아라뱃길 자전거 도로는 모든 구간에서 차량이 통제되고 도로 전체가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안전하게 중거리 라이딩을 모두가 완주할 수 있었다.

영상의학과 교·직원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였으며, 서로가 서로를 응원했던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04 2014년 의료기관 인증 중간 자체조사 시행

QI실에서는 지속적인 질 관리와 환자안전을 위하여 5월 13일 9시부터 '2014년 의료기관 인증 중간 자체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자체조사는 2주기 의료기관인증을 앞두고 시행한 평가 여서 더욱 세심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조성민 진료부장, 이해원 교육연구부장, 김광기 QI실장 등 총 14 명의 조사위원이 시스템 추적조사(지속적 질 향상, 감염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관리)와 환자추적조사를 시행 했다. 특히, 내년 1월에 시행하는 2주기 의료기관 인증수검에 대비하여 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QI실은 “교직원들이 의료기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이 고생스럽겠지만,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다”라며, “본원을 찾는 환우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인공 3호

운영지원팀 주주환 파트장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처음 보면 우락부락한(?) 외모와 큰 목소리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데요. 한번보고 두번보면 자꾸 보고 싶은 남자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느끼셨을 겁니다. 마음이 따뜻한 남자라는걸. 주주환 파트장은 원내에서도 업무와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환우들에게엔 아무리 바빠도 도와주고 갑니다. 쓰레기는 꼭 주워 휴지통에 버리고 갑니다. 그렇다고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우리 모두 주위에 든든한 사람이 되어보아요!!!

알 리 미

네 남자의 만만(근근)한 카툰전 기간 : 5월 19일(월) ~ 6월 1일(일) | 장소 : 1층 로비 전시장

2014년 재난모의훈련 일시 : 5월 22일(목) 18:00 | 장소 : 1층 로비

2015년 간호사 채용 설명회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일시 : 5월 23일(금) 14:00 | 장소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의과대학 강당
대상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4학년 83명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일시 : 5월 22일(목) 13:00 | 장소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강당
대상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4학년 95명

일산동구보건소 건강강좌 강사 : 신경외과 양승엽 | 주제 : 치매

일시 : 5월 21일(수) 10:00~11:00 | 장소 : 일산동구보건소 1층 건강누리(마두동 KT고양지사 1층)

김포시보건소 건강강좌 강사 : 사상체질과 배효상 | 주제 : 사상체질 진단과 건강관리

일시 : 5월 22일(목) 10:00~11:00 | 장소 : 김포시보건소 별관

